

경제

1900원 눈앞... 고베풀린 휘발유값

ℓ 당 최고 1889원... 광주·전남 70곳 1800원 넘어서
자동차용 경유도 일주일 새 10.47원 오른 1500원대

광주·전남에서 보통휘발유가 2년4개월만에 ℓ 당 1800원대를 넘어서는 신기록 경신을 이어가면서 19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관매하는 주유소는 동구 8곳, 남구 4곳, 북구·서구·광산구 각 3곳씩 총 21곳이다.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광주가 1773.47원, 전남이 1770.80원으로 10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승세여서 당분간 국내 석유 가격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12월 둘째주 경유사들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은 국제제품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지역 한 주유소에서 보통휘발유를 ℓ 당 1859원에 판매하고 있다. 휘발유 값이 10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광주지역에서도 보통 휘발유를 ℓ 당 1800원 이상에 판매하는 주유소는 21곳이나 됐다.

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채권단, 조만간 현대차그룹과 협상 나설듯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최종 박탈했다.

이외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 등 처리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여부를 추후 주주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안건도 절대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황금연휴 고객잡아라”

아시아나·KAL 부정기 노선 대폭 확대

항공업계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 여객수요를 잡으려고 다양한 노선의 부정기편을 마련했다.

담양군, 가로등·방범 CCTV 공사

무등록 업체 수의계약 ‘물의를’

담양군이 무등록 전기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담양군은 ‘죽향문화 체험마을 내 가로등 보수공사’와 ‘2010년 자율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사업’과 관련, D전기와 2965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업체로 전기공사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누구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제한 규정을 뒤엎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D전기는 담양군 관내 업체로 20년 넘게 전기공사업을 해왔고 사업자등록증과 기술자격 면허도 가지고 있다”며 “연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해 먼저 계약을 하고 이후에 협회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 인허가 3년연속 40만가구 밀물어
내년부터 집값 상승 ‘술술’

올해도 작년비 3.1% ↓

주택건설(인·허가 기준) 실적이 올해까지 3년 연속 40만가구를 밀물면서 내년부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인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었다. 2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건설 실적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인·허가 누계치는 22만9039가구로 작년 동기의 23만6282가구보다 3.1% 감소했다.

성이 높아 보인다. 올해 1~11월 물량의 경우 민간 부문이 19만3천가구를 차지한 반면 공공 부문은 3만6천가구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공공 부문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光銀 소속 분리매각 촉구
광주경실련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20일 광주은행 매각 중단과 관련, “정부는 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은행을 조속히 분리 매각해 민영화하라”고 촉구했다.

게 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며 “이는 지역민들의 업무를 무시하고 지역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하려는 무책임한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추천하는 기업’ 금호타이어 3년 연속 1위
금호타이어가 3년 연속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에 선정됐다.

코스피지수 2,020.28 (+6.02)
코스닥지수 497.95 (-12.79)
금리 (국고채 3년) 3.35% (-0.01)
원·달러 환율 1,150.20원 (-2.70)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1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